

## 『東醫壽世保元』 引用文 研究에 적용할 수 있는 方法論에 관한 考察(2)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sup>1</sup>  
朴修玄<sup>1</sup> · 丁彰炫<sup>1</sup> · 白裕相<sup>1</sup> · 張祐彰<sup>1</sup> \*

### A study on research methodology of the quoted verses in *Dong-uisusebowon*(2)

Park Su-hyun<sup>1</sup> · Jeong Chang-hyun<sup>1</sup> · Baik You-sang<sup>1</sup> · Jang Woo-chang<sup>1</sup> \*  
<sup>1</sup>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This paper is the sequel to 'A study on research methodology of the quoted verses in *Dong-uisusebowon*(1)'. In this paper, a more detailed discussion on the *Shanghanlun* lines quoted in the *Dong-uisusebowon* were carried out based on the aforementioned conclusion, using tao-ren-cheng-qi-tang(桃仁承氣湯) and di-dang-tang(抵當湯) lines related to the tip disease pattern of the So-eum constitution. First in the case of tao-ren-cheng-qi-tang lines, the treatment instructions tell us to use the formula after treating the tip, only when there are root symptoms left. However, in the *Dong-uisusebowon*, Lee instructed to use tao-ren-cheng-qi-tang when tip symptoms were present. Also, in the di-dang-tang lines, symptoms related to kuang(狂) and stiffening of the lower abdomen which are main manifestations of xu-xue(蓄血) pattern are modified from the *Shanghanlun* version. The reason behind the difference in contents between the *Dong-uisusebowon* and *Shanghanlun* in the mentioned lines is because the lines were already modified in the *Dong-uibogam*. Heo Jun modified the tao-ren-cheng-qi-tang lines to maintain coherence with the contents of di-dang-tang used in the xu-xue(蓄血) pattern. Another reason for Heo's modification of the di-dang-tang lines is to correct the incoherence of symptoms listed according to the difference in severity of the two di-dang-tang disease patterns. As we can see, Heo modified these parts in the *Dong-uibogam* based on logical reasons, which enabled Lee to avoid logical contradiction and suggest the So-eum tip disease pattern naturally, by referencing the lines as quoted in the *Dong-uibogam*.

**Key Words** : *Dong-uisusebowon*(東醫壽世保元), quotation(引用文), methodology(方法論), xu-xue pattern (蓄血證)

## I. 序 論

본 논문은 『東醫壽世保元』 引用文 研究에 적용할 수 있는 方法論에 관한 考察(1)의 續編이며, 前篇에서는 李濟馬가 『東醫壽世保元』을 저술할 당시 『傷寒論』 原文을 직접 접하지 못하고 『東醫寶鑑』을 통해 간접적으로 접하였다는 結論을 제시하였다. 지금부터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結論을 바탕으로 하여 『東醫壽世保元』에 引用된 『傷寒論』 條文에 대해 구체적인 考察을 진행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먼저 李濟馬가 少陰人의 表病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근거로서 引用하였던 桃仁承氣湯 및 抵當湯 條文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東醫壽世保元』에 기술된 桃仁承氣湯 및 抵當湯 條文들은 『傷寒論』의 그것과 내용상 중요한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처럼 차이가 나는 부분은 太陽病 蓄血證에 관한 『傷寒論』 條文 간의 논리적인 문제를 제기함과 동시에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답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식과 합리적인 해답을 바탕으로 하여 李濟馬는 少陰人 鬱狂證에 관한 내용을 논리적인 모순 없이 더욱 매끄럽게 제시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II. 本 論

### 2) 『東醫壽世保元』에 引用된 桃仁承氣湯과 抵當湯 條文

① 『傷寒論』과 『東醫壽世保元』에 기술된 桃仁承氣湯 및 抵當湯 條文 간의 차이점

李濟馬는 『東醫壽世保元』 「少陰人腎受熱表熱病論」에서 少陰人 表病 중 鬱狂證의 證狀 및 진행 과정, 그리고 病機 등을 설명하기 위해 『傷寒論』의 抵當湯 條文들을 주요한 근거로 제시하였다.<sup>1)</sup> 그런데 李濟

馬가 『東醫壽世保元』에 引用한 抵當湯 條文들을 그것들이 본래 기술되어 있던 『傷寒論』 原文과 비교해 보면 몇 가지 주요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점 중에는 특별히 抵當湯 條文을 蓄血證으로 분류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 證狀들, 예컨대 ‘發狂’과 ‘其人如狂’, ‘少腹硬滿’과 ‘少腹硬’과 같은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李濟馬가 『東醫壽世保元』에 引用한 『傷寒論』의 抵當湯 條文들은 「辨太陽病脈證并治」 하에 기술된 두 개의 抵當湯 條文으로서,<sup>2)</sup> 첫 번째는 “太陽病六七日, 表證仍在, 脈微而沈, 反不結胸, 其人發狂者, 以熱在下焦, 小腹當硬滿, 小便自利者, 下血乃愈. 所以然者, 以太陽隨經, 瘀熱在裏故也. 抵當湯主之.”<sup>3)</sup>이며, 두 번째는 “太陽病, 身黃脈沈結, 小腹硬, 小便不利者, 爲無血也. 小便自利, 其人如狂者, 血證諦也, 抵當湯主之.”<sup>4)</sup>이다. 그리고 李濟馬가 『東醫壽世保元』에 引用한 抵當湯 條文들을 이와 비교해 살펴보면, 앞서 첫 번째로 제시된 條文의 경우 原文의 ‘其人發狂’이 ‘其人如狂’으로, ‘小腹當硬滿’이 ‘小腹當滿’으로 수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sup>5)</sup> 또한 이어지는 두

1)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51. “太陽病六七日 表證因在 脈微而沈 反不結胸 其人如狂者 以熱在下焦 小腹當滿 小便自利者 下血乃愈 抵當湯主之. 太陽證 身黃發狂 小腹硬滿 小便自利者 血證 宜抵當湯. 傷寒小腹滿 應小便不利 今反利者 以有血也... 論曰 此證 其人如狂者 腎陽因熱也 小腹硬滿者 大腸怕寒也.”

2) 『傷寒論』에 기술된 抵當湯 條文은 ‘辨太陽病脈證并治’에 실린 두 개의 條文 외에 ‘辨陽明病脈證并治’에도 존재한다. 하지만 李濟馬는 ‘辨太陽病脈證并治’ 하에 기술된 두 개의 抵當湯 條文만을 『東醫壽世保元』에 引用하였다. 『傷寒論』의 ‘辨陽明病脈證并治’ 하에 기술된 抵當湯 條文은 두 개로서, “陽明證, 其人喜忘者, 必有畜血. 所以然者, 本有久瘀血, 故令喜忘, 屎雖硬, 大便反易, 其色必黑者, 宜抵當湯下之. (張仲景 著. 注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p.143.)”와 “病人無表裏證, 發熱七八日, 雖脈浮數者, 可下之. 假令已下, 脈數不解, 合熱則消穀喜飢, 至六七日, 不大便者, 有瘀血, 宜抵當湯.(張仲景 著. 注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p.148.)”이 있다.

3) 張仲景 著. 注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pp.100-101.

4) 張仲景 著. 注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p.101.

5)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 교신저자 : 張祐彰,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敎室  
E-mail : jangchang@khu.ac.kr Tel : (02) 961-0735  
접수일(2013년 10월25일), 수정일(2013년 11월14일),  
게재확정일(2013년 11월15일).

번째 條文의 경우에도 ‘其人如狂’이 ‘發狂’으로, ‘小腹硬’이 ‘小腹硬滿’으로 수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sup>6)</sup>

한편, 李濟馬는 少陰人 鬱狂證을 설명하기 위해 抵當湯 條文뿐만 아니라 『傷寒論』의 桃仁承氣湯 條文도 함께 引用하였는데, 桃仁承氣湯 條文의 경우에도 『傷寒論』 原文과 비교해보면 치료 원칙상 핵심적인 내용들이 삭제되고 수정된 상태로 『東醫壽世保元』에 引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傷寒論』 原文의 桃仁承氣湯 條文의 경우 “太陽病不解, 熱結膀胱, 其人如狂, 血自下, 下者愈. 其外不解者, 尚未可攻, 當先解其外. 外解已, 但少腹急結者, 乃可攻之, 宜桃核承氣湯.”이지만, 『東醫壽世保元』에서는 ‘其外不解者, 尚未可攻, 當先解其外. 外解已’가 삭제된 상태로 기술되어 있다.<sup>7)</sup> 여기서 삭제된 내용은 張仲景이 『傷寒論』 전반에 걸쳐 表證과 더불어 下法을 사용해야 할 裏證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했던 대원칙에 해당한다.

이처럼 李濟馬는 『傷寒論』 原文의 일부가 수정, 혹은 삭제된 抵當湯 및 桃仁承氣湯 條文들을 근거로 하여 少陰人 表病의 鬱狂證을 새롭게 제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東醫壽世保元』과 『傷寒論』 原文과의 차이점들은 抵當湯 條文과 桃仁承氣湯 條文에 있어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들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傷寒論』 原文과의 차이점들은 李濟馬가 少陰人 表病의 鬱狂證을 새롭게 제시하는 데 있어 논리적인 전개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少陰人 鬱狂證에 대한 다양한 논란들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李濟馬가

제시한 少陰人의 鬱狂證의 여러 가지 정황들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東醫壽世保元』에 引用된 抵當湯 條文들과 桃仁承氣湯 條文이 과연 仲景이 전하고자 한 뜻의 대개를 훼손하는 정도로 수정되는 않았는가에 대한 정밀한 考察이 요구된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처럼 수정된 抵當湯 및 桃仁承氣湯 條文들을 통해 李濟馬가 새롭게 제시한 少陰人 鬱狂證이 과연 논리적으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인지에 대한 합리적인 考察이 요구된다.

물론 이에 대해 혹자는 『東醫壽世保元』에 기술된 抵當湯 條文이 대체로 仲景이 제시한 狂證 및 小腹의 硬化에서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다. 또한 桃仁承氣湯 條文의 경우에도 일부 내용이 삭제되어 있을 뿐, 李濟馬가 이를 적극적으로 부인하거나 수정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 따라 『東醫壽世保元』의 抵當湯 및 桃仁承氣湯 條文은 『傷寒論』의 그것과 비교해 의미상 대동소이한 것으로서 크게 주목해서 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傷寒論』과 『東醫壽世保元』에 실린 條文간의 차이는 이처럼 심상히 여겨 지나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를 논하기 위해 단적으로 抵當湯 條文의 狂證에 관한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傷寒論』과 『東醫壽世保元』에 실린 두 개의 抵當湯 條文 중 狂證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傷寒論』에서는 ‘其人發狂’으로 제시된 내용이 『東醫壽世保元』에는 ‘其人如狂’으로, 그리고 반대로 『傷寒論』에 ‘其人如狂’으로 제시된 내용은 『東醫壽世保元』에서 ‘發狂’으로 수정되어 기술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서 ‘其人發狂’과 ‘其人如狂’은 發狂의 정도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病의 輕重의 차이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표현이다. 따라서 『傷寒論』 原文과 일치하지 않는 다른 내용들은 차치하고서라도, 최소한 抵當湯 條文의 狂證을 통하여 張仲景과 李濟馬가 抵當湯 條文들 간에 病情의 輕重을 서로 다르게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미묘한 인식의 차이는 少陰人 鬱狂證의 전체적인 맥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東醫壽世保元』에 기술된 抵當湯 條文에 대한 비판적인 考察이 이루어져야만 이 부분을 정확하게

2005. p.651. “太陽病六七日 表證因在 脈微而沈 反不結胸 其人如狂者 以熱在下焦 小腹當滿 小便自利者 下血乃愈 抵當湯主之”

6)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51. “太陽證 身黃發狂 小腹硬滿 小便自利者 血證 宜抵當湯”

7) 이 외에도 작은 차이들이 몇 가지 더 존재하지만 큰 의미가 있진 않으므로 본문에서 언급하지 않았다. 『東醫壽世保元』에 引用된 桃仁承氣湯 條文은 다음과 같다.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51. “太陽病不解 熱結膀胱 其人如狂 血自下者 自愈 但小腹急結者 宜攻之 宜桃仁承氣湯.”

이해할 수 있다.

한편, 혹자는 『傷寒論』原文과 『東醫壽世保元』에 기술된 抵當湯 條文간의 차이를 다소 다른 방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예컨대 李濟馬가 『東醫壽世保元』에 引用하면서 수정한 條文들은 대체로 『東醫寶鑑』에 기술되어 있는 그것과 일치한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혹자는 李濟馬가 抵當湯 條文들을 『東醫寶鑑』에서 『東醫壽世保元』으로 引用하는 과정에서 許浚이 『東醫寶鑑』에 범한 오류까지도 李濟馬가 그대로 답습하게 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sup>8)</sup> 실제로 이와 같은 가설을 제기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가설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許浚이 『東醫寶鑑』에 引用한 抵當湯 條文이 단순한 실수나 착각 등으로 인한 오류로 기술한 것인지, 아니면 명백한 의도를 갖고 ‘述而不作’의 형태로 기술한 것인지를 반드시 밝혀내야만 한다.<sup>9)</sup>

8) 실제로 학계에는 抵當湯 條文은 아니지만 甘草瀉心湯 條文의 ‘此乃結熱’에 대해 이와 같은 結論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예컨대 李壽瓊은 자신의 論文에서 “그러나 『東醫寶鑑』에서 ‘此非結熱’을 ‘此乃結熱’로 引用한 『東醫寶鑑』의 오류를 그대로 引用하였다.”라고 기술하였다.(李壽瓊, 『東醫壽世保元』 太少陰陽人の ‘病證論’에 관한 研究, 慶熙大學 校 博士學位論文, 2000. p.199.)

9) 許浚은 『東醫寶鑑』을 저술하면서 引用文의 내용들을 자신의 견해에 맞게 많은 부분을 수정하여 기술하였으며, 이에 대해서는 본 論文의 前篇 및 기타 筆者가 발표한 論文들에서 많은 지면을 할애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을 고려할 때 『東醫寶鑑』의 抵當湯 條文 또한 단순한 오류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오류로 규정하는 주장들에 대해 가능한 반론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일차적으로는 抵當湯 條文에서 狂證 및 少腹과 관련된 證狀들이 抵當湯證의 핵심 證狀임을 許浚이 몰랐을 리가 없으며, 만에 하나 실수를 범한 것이라 하더라도 같은 실수를 한 條文에서만 아니라 두 條文에서 일관성 있게 저질렀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한편, 許浚은 『東醫寶鑑』 「雜病篇」 寒門의 ‘傷寒血證’에서 太陽病에 해당하는 두 개의 抵當湯 條文을 기술하였다.(許浚 著, 陳柱杓 校, 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7. p.1115. “傷寒血證 ○ 太陽病六七日, 表證因在, 脈微而沈, 反不結胸, 其人如狂者, 以熱在下焦, 小腹當滿, 小便自利者, 下血乃愈, 抵當湯主之. 仲景 ○ 太陽證, 身黃, 發狂, 小腹硬滿, 自利者, 血證諦也, 宜抵當湯. 仲景”) 또한 許浚은 『東醫寶鑑』 「雜病篇」 寒門의 ‘太陽蓄血’에서도 『傷寒論』의 太陽病에 기술된 두 개의 抵當湯 條文을 기술하였는데, 첫 번째 條文은 ‘傷寒血證’의 그것과 동일하게 기술하였고 두 번째 條文은 간략히 기술하였다.(許浚 著, 陳柱杓 校, 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7. p.1074. “太陽蓄血 ○

뿐만 아니라 만일 이와 같은 가설을 그대로 인정할 경우, 李濟馬는 근본적으로 ‘오류가 내재된’ 條文들을 근거로 하여 이전에 없던 새로운 體質 醫學을 제시한 꼴이 된다. 그리고 이로 인해 李濟馬가 제시한 체질의학은 李濟馬 이전의 의학과 비교하여 ‘필연적으로’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의학이 되며, 『東醫壽世保元』을 研究하는 研究者들을 포함하여 學界의 모든 學者들에게 심각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 곧, 이와 같은 가설은 李濟馬가 제시한 體質 醫學 자체가 오류임을 주장하는 것과 다름 아닌 것이 된다. 따라서 오류라고 선불리 판단하기 이전에 먼저 許浚이 引用한 條文에 어떠한 개인적인 판단이 반영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살펴보는 과정이 반드시 요구된다. 또한 이와 같은 주장을 제기할 때에는, 특히 四象醫學을 研究하는 研究者들의 경우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해야 하며, 단순히 화두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러하다고 생각되는지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들을 치밀하게 제시해야 한다.

물론 혹자는 이러한 가설을 견지하면서도 筆者가 지적하는 것과 같은 문제가 반드시 발생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예컨대 李濟馬가 『傷寒論』原文에 기술된 抵當湯 條文을 이미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단순히 引用 과정상의 오류만을 범한 것이기 때문에, 비록 『東醫壽世保元』原文에는 오류가 있을지언정 내용상으로는 『傷寒論』의 그것과 같으며 실제 少陰人 鬱狂證의 내용을 전개하

太陽病六七日, 表證因在, 脈微而沈, 反不結胸, 其人如狂者, 以熱在下焦, 小腹當滿, 小便自利者, 下血乃愈, 抵當湯主之. 仲景 ○ 太陽證俱在, 而脈反沈, 兼發狂, 小腹硬者, 宜用此藥. 方見下”) 그런데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許浚이 각각 떨어진 두 군데에서 동일한 抵當湯 條文을 기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發狂에 관한 내용들이 서로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만일 『東醫寶鑑』의 抵當湯 條文이 許浚의 단순한 실수로 인한 ‘傳寫之誤’에 불과하다면 許浚은 별개로 기술한 두 군데에서 각각 동일한 실수를 반복한 것인데, 이러한 가설은 상당히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太陽蓄血’에 기술된 두 번째 抵當湯 條文의 경우 許浚은 서두에 ‘俱在’와 ‘脈反沈’이라는 내용을 새롭게 삽입하고 기타 나머지 證狀들 중 일부는 삭제하여 기술하였다. 이것은 許浚이 두 번째 抵當湯 條文을 기술할 때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나타낸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같은 실수를 다시 반복했다고 보기엔 굉장히 어렵다.

는 데에도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筆者가 본 論文의 前篇에서 三物白散과 巴豆를 통해 집중적으로 논파한 바와 같이, 李濟馬는 거의 대부분의 『傷寒論』 原文을 직접 접하지 못하고 『東醫寶鑑』을 통해 간접적으로 접한 것이 확실하다. 따라서 李濟馬가 『傷寒論』 原文을 통해 『傷寒論』을 충분히 熟知한 상태라는 가정은 그 자체로 성립이 어려우며, 『東醫寶鑑』에 실린 『傷寒論』 引用文에서 오류가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해 李濟馬 또한 필연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매우 자명하다. 그러므로 어떤 식으로 이해해보고자 해도 李濟馬가 『東醫寶鑑』의 오류를 그대로 답습했다는 가설은 『東醫壽世保元』의 논리성 및 研究의 필요성을 그 자체로 격하시킴과 동시에 『東醫寶鑑』의 가치마저도 함께 격하시키는 굉장히 무책임한 결과를 초래한다.

이상의 내용들을 통해 李濟馬가 『東醫壽世保元』에서 새롭게 제시한 少陰人 鬱狂證을 분명히 이해하고 이에 대한 합리성을 긍정하기 위해서는, 『東醫壽世保元』에 기술된 桃仁承氣湯 및 抵當湯 條文들을 비판적으로 考察하는 과정이 반드시 요구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목적의식에 따라 본 論文에서는 『東醫壽世保元』의 桃仁承氣湯 및 抵當湯 條文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수정되었으며, 어떠한 의도가 반영된 것인지에 대해 먼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어서 이러한 의도성을 지니고 수정된 桃仁承氣湯 및 抵當湯 條文이 李濟馬가 少陰人 鬱狂證을 새롭게 제시하는데 있어 논리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해보고, 이로 인한 少陰人 鬱狂證의 전개에 논리적인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 ② 『東醫壽世保元』에 기술된 桃仁承氣湯 및 抵當湯 條文의 수정 과정

『東醫壽世保元』에 기술된 桃仁承氣湯 및 抵當湯 條文이 수정된 과정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다. 먼저 첫 번째는, 李濟馬가 『東醫壽世保元』을 저술할 당시 引用 文獻으로 삼았던 서적

들의 著者が 條文들을 이미 수정하였으며, 이를 李濟馬가 『東醫壽世保元』에 별다른 수정 없이 引用함으로써 『東醫壽世保元』에 그대로 기술되게 된 경우이다. 이 경우 李濟馬가 『傷寒論』 條文들을 引用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서적은 거의 예외 없이 『東醫寶鑑』이다. 이는 본 論文의 前篇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었던 바이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李濟馬가 『東醫壽世保元』을 저술할 당시 자신의 견해를 간접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여러 引用 가능한 서적 중 하나에서 해당 條文들을 引用하면서 자신이 條文에 직접 수정을 가한 경우이다. 실제로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로 『東醫壽世保元』 「少陰人胃受寒裏寒病論」에 실린 赤石脂禹餘糧湯 條文을 볼 수 있는데, 李濟馬는 赤石脂禹餘糧湯 條文을 『東醫壽世保元』에 引用하면서 『傷寒論』 原文 및 『東醫寶鑑』, 그리고 기타 李濟馬가 『東醫壽世保元』 「醫源論」에서 중요한 비중으로 언급했던 모든 서적들에 기술되어 있는 ‘理中者, 理中焦, 此利在下焦’를 의도적으로 삭제하여 기술하였다.<sup>10)</sup> 그러므로 이를 통해 볼 때 李濟馬가 條文을 引用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직접 수정을 가했을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처럼 『東醫壽世保元』의 桃仁承氣湯 및 抵當湯 條文이 수정되어 引用된 과정에는 크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어떠한 것이 옳은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東醫壽世保元』과 『東醫寶鑑』에 실려 있는 해당 條文들을 직접 비교, 분석해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러므로 실제로 두 서적에 실린 條文들을 비교해보면, 『東醫寶鑑』의 抵當湯 條文 중 “太陽證, 身黃, 發狂, 小腹硬滿, 自利者, 血證諦也, 宜抵當湯.”<sup>11)</sup>에 ‘自利’로 기술된 내용이 『東醫壽世保元』에는 ‘小便自利’로, 『東醫寶鑑』에서 ‘血證諦也’로 기술된 내용이 『東醫壽世保元』에서는 ‘血證’으로 수정된 것 이외에 狂證과 小腹의 硬化에 관한 證狀들을

10)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拙稿인 “朴修玄, 丁彰炫, 白裕相, 張祐彰. 『東醫壽世保元』 「少陰人胃受寒裏寒病論」의 赤石脂禹餘糧湯 條文에 대한 考察(1).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0. 23(6). pp.59-61.”을 참고하기 바란다.

11) 許浚 著. 陳柱杓 校. 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7. p.1115.

포함하는 모든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東醫壽世保元』의 抵當湯 條文 중 『東醫寶鑑』에 기술된 내용과 거의 동일하게 기술된 “太陽證 身黃發狂 小腹硬滿 小便自利者 血證 宜抵當湯”<sup>12)</sup>의 경우 『傷寒論』에 기술된 “太陽病, 身黃, 脈沈結, 小腹硬, 小便不利者, 爲無血也. 小便自利, 其人如狂者, 血證諦也, 抵當湯主之.”<sup>13)</sup>와 비교할 때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桃仁承氣湯 條文의 경우에도 『東醫寶鑑』의 ‘其人似狂’이 ‘其人如狂’으로, ‘若血自下者’가 ‘血自下者’로 기술된 것 이외에 나머지 내용이 모두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李濟馬가 『東醫壽世保元』 「醫源論」에서 醫道始興과 中興, 그리고 復興을 언급하며 제시한 서적들 중 『東醫寶鑑』을 제외한 『傷寒論』과 『活人書』, 『古今醫鑑』, 『醫學入門』에 실린 桃仁承氣湯 및 抵當湯 條文들을 『東醫壽世保元』에 실린 條文들과 비교해보면, 『東醫壽世保元』에 수정되어 인용된 내용들과 서로 일치하는 바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14)</sup>

한편, 『東醫壽世保元』에 기술된 抵當湯 條文 중 “太陽證, 身黃, 發狂, 小腹硬滿, 小便自利者, 血證, 宜抵當湯.”을 살펴보면, 서두에 『傷寒論』에 기술된 바와 같이 太陽病이 아닌 太陽證으로 기술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許浚이 李濟馬에 앞서 抵當湯 條文의 서두에 太陽病을 太陽證으로 기술한 것은 자신의 견해를 밝히기 위한 의도적인 기술로서 다른 醫書들과 구분되는 특징인데,<sup>15)16)</sup> 李濟

馬가 『東醫壽世保元』 「醫源論」에서 제시한 서적들 중 抵當湯 條文의 서두에 ‘太陽證’으로 기술한 醫書는 오직 『東醫寶鑑』뿐이다. 그러므로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東醫壽世保元』에 실린 桃仁承氣湯 및 抵當湯 條文들이 『傷寒論』 原文과 비교해 일부 중요한 내용들이 수정된 까닭은, 許浚이 『東醫寶鑑』에서 이미 수정을 가한 條文들을 李濟馬가 몇 가지 간단한 수정만을 거쳐 『東醫壽世保元』에 그대로 인용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 ③ 『東醫寶鑑』에 기술된 桃仁承氣湯 條文에 대한 考察

그렇다면 許浚이 『傷寒論』의 桃仁承氣湯 및 抵當湯 條文을 『東醫寶鑑』에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이처럼 수정하여 기술한 까닭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

위해 ‘太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모두 太陽病으로만 기술되어 있으며, 太陽證으로 기술된 경우는 없다. 그리고 『傷寒論』 전체에서 太陽證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경우는 陽明病 條文 중 ‘二陽并病, 太陽證罷, 但發潮熱, 手足絳熱汗出, 大便難而譫語者, 下之則愈, 宜大承氣湯.(張仲景 著. 注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p.137.)’에서 단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 16) 『東醫寶鑑』 寒門에는 『傷寒論』 條文에 太陽病이 아닌 太陽證으로 수정되어 기술된 것을 종종 발견할 수 있으며,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許浚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컨대 許浚은 ‘傷寒血證’에서 “○太陽證, 身黃, 發狂, 小腹硬滿, 自利者, 血證諦也, 宜抵當湯. 仲景”(許浚 著. 陳柱杓 校. 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7. p.1115.)이라 하여 太陽病이 아닌 太陽證으로 기술하였다. 그런데 許浚은 이와 동일한 條文을 인용한 다른 부분인 ‘太陽蓄血’에서는 “○太陽證俱在, 而脈反沈, 兼發狂, 小腹硬者, 宜用此藥. 方見下”(許浚 著. 陳柱杓 校. 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7. p.1074.)라 하여 ‘太陽證俱在’라는 더욱 구체적인 서술을 하였다. 이로 볼 때 許浚이 『傷寒論』 原文의 太陽病을 太陽證으로 제시한 까닭은 太陽證, 곧 惡寒을 대표로 표현되는 太陽病 提綱의 證狀들이 분명히 존재함을 확실히 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이 條文의 경우 太陽病임에도 불구하고 發狂에 身黃까지 진행된 상황인데, 비록 太陽病에서부터 시작된 것은 맞지만 과연 惡寒을 포함한 表證들이 존재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다. 그리고 만일 表證이 없어졌다고 판단하는 경우, 抵當湯이 아니라 承氣湯類의 處方을 사용하기가 쉬워진다. 따라서 許浚은 表證이 존재하는 상황임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承氣湯類가 아닌 抵當湯을 사용해야 함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처럼 太陽證이란 표현을 기술한 것으로 판단된다.

12)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51.

13) 張仲景 著. 注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p.101.

14) 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朱肱의 『活人書』에 실린 抵當湯 條文은 『傷寒論』 原文에 실린 抵當湯 條文과 일치한다.(朱肱 著. 萬友生, 萬蘭清 等 點校. 活人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3. p.202. “抵當湯 九十 太陽病六七日, 表證仍在, 脈微而沈, 反不結胸, 其人發狂者, 以熱在下焦, 少腹硬滿, 小便自利者, 下血乃愈. 所以然者, 以太陽隨經瘀熱在裏故也. 或太陽病, 身黃, 脈沈結, 小腹硬, 小便不利者, 爲無血也. 小便自利, 其人如狂者, 血證諦也.”) 그리고 『古今醫鑑』과 『醫學入門』에는 해당 條文이 기술되어 있지 않다.

15) 『傷寒論』 原文에는 條文의 서두에 病證의 범주를 밝히기

한 것이 과연 논리적으로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桃仁承氣湯 條文에 대한 고찰을 진행하면 다음과 같다.

대체로 역대 『傷寒論』 주가들은 『傷寒論』의 桃仁承氣湯證과 抵當湯證을 蓄血證으로 분류하였으며, 許浚 또한 이러한 견해에 동의하여 동일하게 桃仁承氣湯證과 抵當湯證을 蓄血證으로 분류하였다. 이는 『東醫寶鑑』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우선 許浚은 桃仁承氣湯과 抵當湯 條文을 『東醫寶鑑』 「雜病篇」 寒門의 ‘傷寒血證’이라는 단일 항목 하에 함께 기술하였다.<sup>17)</sup> 또한 두 병증 모두 太陽病과 太陽證으로 제시하였는데, 이는 許浚이 桃仁承氣湯證과 抵當湯證을 太陽病의 범주에 속하는 血證으로서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식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許浚은 두 개의 抵當湯 條文만으로 『東醫寶鑑』 「雜病篇」 寒門의 ‘太陽蓄血’이라는 단일 항목을 기술하였는데, 이는 抵當湯證을 血證 가운데서 蓄血으로 인식했음을 말해준다. 그리고 桃仁承氣湯의 경우에도 『東醫寶鑑』 「內景篇」 血門의 ‘蓄血證’에 기술되어 있다. 그러므로 許浚은 桃仁承氣湯證과 抵當湯證 모두 역대 『傷寒論』 주가들의 견해와 같이 蓄血證으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東醫壽世保元』과 『東醫寶鑑』에 引用된 桃仁承氣湯 및 抵當湯 條文들은 『傷寒論』에서 여러 편제 중 ‘辨太陽病脈證并治’하에 기술되어 있으며, 原文에 表證이 여전히 존재함을 의미하는 ‘太陽病不解’와 ‘表證仍在’, ‘太陽病’이라는 표현이 각각 기술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 張仲景과 許浚 모두 桃仁承氣湯證과 抵當湯證이 三陰三陽 중 ‘太陽’, 그리고 表部에서 正氣가 寒氣에 傷한 후 表部에만 영향을 주는데 그치지 않고 점차 裏部까지 영향을 미쳐 蓄血證이 발생한 것으로 이해했음을 알 수 있다.

17) 許浚 著. 陳柱杓 校. 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7. p.1115. “傷寒血證 ○ 太陽病六七日, 表證因在, 脈微而沈, 反不結胸, 其人如狂者, 以熱在下焦, 小腹當滿, 小便自利者, 下血乃愈, 抵當湯主之. 仲景 ○ 太陽證, 身黃, 發狂, 小腹硬滿, 自利者, 血證諦也, 宜抵當湯. 仲景 ... ○ 太陽病不解, 熱結膀胱, 其人似狂, 若血自下者, 自愈. 但小腹急結者, 宜攻之, 宜桃仁承氣湯. 仲景”

한편 『東醫寶鑑』을 살펴보면, 許浚이 『傷寒論』의 桃仁承氣湯證과 抵當湯證을 비교할 때 抵當湯證이 桃仁承氣湯證보다 더욱 重한 蓄血證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許浚은 『東醫寶鑑』 「內景篇」 血門의 ‘蓄血證’에서 上焦蓄血에 犀角地黃湯, 中焦蓄血에 桃仁承氣湯, 下焦蓄血에 抵當湯을 사용하도록 주문하였다.<sup>18)</sup> 또한 『東醫寶鑑』 「雜病篇」 寒門의 ‘傷寒血證’을 살펴보면, 『傷寒論』에서 제시된 桃仁承氣湯과 抵當湯 條文뿐만 아니라 앞서 上焦蓄血에 사용하도록 주문했던 처방인 犀角地黃湯, 곧 『傷寒論』에는 없는 犀角地黃湯도 ‘傷寒血證’하에 함께 기술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sup>19)</sup> 따라서 許浚은 비단 『東醫寶鑑』 「內景篇」 血門과 같은 雜病 뿐만 아니라 傷寒의 蓄血證에도 桃仁承氣湯과 抵當湯 뿐만 아니라 犀角地黃湯을 동일한 蓄血證의 系統 안에서 함께 운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어서 『東醫寶鑑』 「內景篇」 血門의 ‘嘔血吐血’을 살펴보면, 許浚은 血證에 輕하면 犀角地黃湯을, 重하면 桃仁承氣湯과 抵當湯을 사용하도록 주문하였다.<sup>20)</sup> 여기서 犀角地黃湯은 앞서 許浚이 上焦蓄血證에 사용하도록 주문한 처방으로서, 이는 許浚이 桃仁承氣湯과 抵當湯을 사용해야 하는 中焦와 下焦 蓄血證에 비해 犀角地黃湯을 사용해야 하는 上焦 蓄血證을 비교적 輕한 血證으로 분류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와 동일한 기준으로 許浚이 三焦로서 분류한 蓄血證 중 桃仁承氣湯證과 抵當湯證을 비

18) 許浚 著. 陳柱杓 校. 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7. p.303. “蓄血證 ... ○ 凡蓄血, 有上中下之別 ... 血蓄上焦則善忘, 宜犀角地黃湯. 方見下. 血蓄中焦, 胸滿身黃, 漱水不欲嚥, 宜桃仁承氣湯.(方見傷寒) 血蓄下焦則發狂, 糞黑小腹硬滿, 宜抵當湯丸, 須取盡黑物爲效. 方見傷寒.”

19) 許浚 著. 陳柱杓 校. 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7. p.1115. “傷寒血證 ... ○ 衄忌發汗者, 爲無脈或脈微故也. 若脈浮緊, 身疼惡寒發熱, 則汗之可也, 宜麻黃湯桂枝湯. 方並見上. 若脈微不可汗, 則犀角地黃湯主之. 方見血門. 「海藏」 ... ○ 傷寒頭痛, 發熱口乾, 口鼻血出, 午後昏沈, 耳聾脇痛, 俗名血汗病也, 犀角地黃湯合小柴胡湯主之. 「醫鑑」”

20) 許浚 著. 陳柱杓 校. 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7. p.308. “汗乃心液, 熱則變紅而逆出上竅, 傷寒失汗, 則熱毒入藏, 化爲癰血, 從口吐出, 多屬陽明. 凡見目紅骨熱, 神昏狂譫, 胸腹急滿, 皆血證也. 輕者犀角地黃湯加黃芩梔子茅根藕節. 重者桃仁承氣湯抵當湯丸. 方見寒門「入門」”

교해볼 경우, 下焦 蓄血證에 해당하는 抵當湯證이 中焦 蓄血證에 해당하는 桃仁承氣湯證에 비해 더욱 강한 병증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앞서 張仲景과 許濂이 桃仁承氣湯證과 抵當湯證이 表에서부터 시작되어 裏로 진행된 病證으로 인식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에도 蓄血證의 단계별 구분 기준인 上焦와 中焦, 下焦는 蓄血證이 表에서 裏로 진행됨에 따라 심화되는 病證의 단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서도 下焦 蓄血證으로 분류되는 抵當湯證이 中焦로 분류되는 桃仁承氣湯證보다 더욱 강한 病證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또한 『傷寒論』 原文을 통해 살펴보면, 桃仁承氣湯證은 少腹의 證狀이 ‘少腹急結’이지만 抵當湯證은 ‘少腹硬滿’으로서 桃仁承氣湯證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상태이다. 그리고 狂證의 경우에도 桃仁承氣湯證에는 ‘其人如狂’밖에 없지만, 抵當湯證에는 ‘其人如狂’과 더불어 이보다 더욱 강한 ‘發狂’이 기술되어 있기도 하다. 곧, 狂證을 기준으로 病情을 판단해보아도 抵當湯證이 아무리 輕하여도 桃仁承氣湯證과 비슷하며, 대체로는 그 이상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21)</sup> 따라서 張仲景의 관점이든, 許濂의 관점이든 그 어느 것을 따르더라도 抵當湯證이 桃仁承氣湯證보다 더 강한 病證임을 분명하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東醫寶鑑』의 桃仁承氣湯 條文에 삭제된 ‘其外不解者, 尙未可攻, 當先解其外. 外解已’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桃仁承氣湯과 抵當湯은 『傷寒論』의 治法上 下法에 해당하는 處方들이다. 실제로 張仲景은 桃仁承氣湯 條文에 ‘乃可攻之’, 抵當湯 條文에 ‘下血’을 기술함으로써 이 처방들이 治法上 下法에 해당함을 밝혔다. 또한 抵當湯의 處方 구성에 下法에 해당하는 大黃이 포함된다는 점, 그리고 抵當湯과 유사한 條文인 抵當丸 條文에도 ‘當下之’로 기술되어있다는 점, 그리고 抵當湯과 病機 및 治法上 맥을 같이 하는 桃仁承氣湯의 경우 이미 處方名에 ‘承氣湯’이라는 표

현이 명기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傷寒論』의 ‘辨陽明病脈證并治’의 抵當湯 條文에 ‘下之’라는 표현이 명시된 점<sup>22)</sup>을 통해서도 桃仁承氣湯과 抵當湯이 분명하게 下法에 해당하는 處方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張仲景은 『傷寒論』에서 일반적으로 下法을 시행해야하는 상황에 아직 表證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먼저 汗法을 시행하여 表를 풀어난 후에 비로소 下法을 시행할 것을 주문하였다. 그러므로 張仲景은 下法에 해당하는 桃仁承氣湯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下法의 용례와 마찬가지로 ‘其外不解者, 尙未可攻, 當先解其外. 外解已, 但少腹急結者, 乃可攻之, 宜桃核承氣湯.’과 같이 表證이 모두 없어지고 단지 ‘少腹急結’이 남은 이후에만 사용할 것을 條文에서 분명히 하였다.

하지만 이와 달리 抵當湯 條文의 경우에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이와 같은 원칙에서 어긋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실제로 『傷寒論』 原文에 기술된 내용을 그대로 따를 경우, 抵當湯證은 ‘太陽病六七日 表證因在’와 ‘太陽病’의 상황, 곧 분명하게 表證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下法에 해당하는 抵當湯을 바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桃仁承氣湯 條文에 기술된 ‘其外不解者, 尙未可攻, 當先解其外. 外解已’의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여 表證이 존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없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조문을 그대로 따르면 결국 表證 有無에 상관없이 抵當湯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은 여타 『傷寒論』의 내용들과 비교할 때 治法에 대한 논란을 일으키게 된다.

그래서 실제로 역대 『傷寒論』 주가들 중에서도 抵當湯 條文에 존재하는 이와 같은 문제를 인식한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주가들 중 대표적으로 朱肱은 이와 같은 논리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抵當湯 또한 表證 有無를 잘 살펴야 하며, 만일 表證이 있을 경우 桂枝湯을 먼저 사용하여 表部를 풀어내고 이후에 저당탕을 사용할 것을 별도로 주문하기도 하였다.<sup>23)</sup> 이와 같은 朱肱의 논술은 『傷寒論』의 일반

21) 단적으로 『傷寒論』에서 桃仁承氣湯證이 ‘辨太陽病脈證并治’에만 국한되는 반면 抵當湯證은 ‘辨太陽病脈證并治’ 뿐만 아니라 ‘辨陽明病脈證并治’에까지도 포함된다. 따라서 이를 통해 볼 때에도 抵當湯證이 桃仁承氣湯證보다 대체로 더욱 중함을 알 수 있다.

22) 張仲景 著. 注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p.143. “陽明證, 其人喜忘者, 必有畜血. 所以然者, 本有久瘀血, 故令喜忘, 屎雖硬, 大便反易, 其色必黑者, 宜抵當湯下之.”

적인 경우 및 桃仁承氣湯 條文에 근거하여 抵當湯 條文을 판단한 것에 해당한다. 하지만 朱肱과 같이 일반적인 원칙을 존중하기보다 『傷寒論』에 기술된 原文 그 자체를 경험 및 사실로서 최대한 존중할 경우, 表證이 아직 존재할 때 抵當湯을 사용함으로써 桃仁承氣湯證보다 더욱 重한 抵當湯證이 치료되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부정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桃仁承氣湯 條文은 『傷寒論』의 辨太陽病脈證并治에서 한 개인 반면 抵當湯 條文은 두 개가 실려 있는데, 두 條文 모두에서 抵當湯을 사용할 당시 表證에 관한 내용이 명백히 존재한다. 따라서 단지 한 개의 條文이 단순한 오류로 이와 같이 기술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抵當湯 條文 자체를 최대한 인정할 경우, 桃仁承氣湯證 또한 비록 表證이 있을지라도 바로 桃仁承氣湯을 사용하여 치료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桃仁承氣湯證은 ‘血自下, 下者愈.’와 같이 抵當湯證에서는 볼 수 없는 저절로 낫는 기전이 존재할 정도로 抵當湯證보다 病情이 가벼운 證狀이기 때문이다. 곧 桃仁承氣湯證보다 더욱 심한 抵當湯證도 表證이 있을 당시에 桃仁承氣湯보다 瀉下하는 藥力이 더욱 강한 抵當湯을 사용하여 치료가 되었는데, 그보다 더욱 病情이 가벼운 桃仁承氣湯證을 抵當湯보다 藥力이 더욱 약한 桃仁承氣湯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관점에서 桃仁承氣湯 條文을 이해할 경우, 桃仁承氣湯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굳이 表證 有無를 신경 쓸 필요가 없어진다. 곧, 『傷寒論』 原文의 내용과 같이 먼저 表를 풀 후에 桃仁承氣湯을 사용해도 되고, 表證이 있을 때 바로 桃仁承氣湯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許浚은 ‘其外不解者, 尙未可攻, 當先解其外. 外解已’를 삭제함으로써 抵當湯證과 같이 桃仁承氣湯

證 또한 表證 有無에 상관없이 桃仁承氣湯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자신의 견해를 조심스럽게 제시할 수 있었다.<sup>24)</sup>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 許浚이 가급적 表證이 있을 때에 桃仁承氣湯을 바로 사용하도록 주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본래 『傷寒論』 原文의 桃仁承氣湯 條文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東醫寶鑑』에 기술된 桃仁承氣湯 條文을 통해 許浚이 表證 有無에 상관없이 桃仁承氣湯을 쓸 수 있게 했다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만일 『傷寒論』 原文을 접하지 못한 상태에서 『東醫寶鑑』의 桃仁承氣湯 條文을 抵當湯 條文들과 함께 읽을 경우 表證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桃仁承氣湯을 바로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傷寒論』 原文을 직접 접하지 못하고 『東醫寶鑑』을 통해 간접적으로 접했던 李濟馬는 桃仁承氣湯 條文에 대해 『傷寒論』에 기술된 바와 같이 表證이 사라진 후에 비로소 桃仁承氣湯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表證이 있을 때 桃仁承氣湯을 바로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실제로 이러한 사실은 『東醫壽世保元』 「少陰人腎受熱表熱病論」에서 ‘太陽病外證未除而數下之 遂下利不止. 心下痞硬 表裏不解 人參桂枝湯主之 ... 太陽病外證未除而數下之遂下利不止云云者亦可見 古人之於此證 用承氣湯則下利不止 故遂變其方而用抵當桃仁湯耳.’<sup>25)</sup>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여기서 李濟馬는 『傷寒論』의 桂枝人參湯 條文을 인용하였는데,<sup>26)</sup> 그 중 ‘太陽病’과 ‘外證未除’를 통해

23) 朱肱은 『活人書』의 ‘問發狂’에서 傷寒의 狂證에 대해 설명하면서 “大抵傷寒當汗不汗, 熱畜在裏, 熱化爲血, 其人喜忘而如狂, 血上逆則喜忘, 血下畜則內爭, 甚者抵當湯, 抵當圓, 輕者桃仁承氣湯, 犀角地黄湯. 須取盡黑物爲效. 失汗, 熱畜在膀胱經, 若用抵當湯, 更須仔細審其有無表證, 若有蓄血證而外不解, 亦未可使用抵當湯. 先用桂枝湯以解其外, 緣熱在膀胱太陽經故也.”(朱肱 著. 萬友生, 萬蘭清 等 點校. 活人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3. p.133.)를 통해 抵當湯을 사용하는 법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24) 許浚은 桃仁承氣湯證에 表證 有無와 상관없이 桃仁承氣湯을 사용하도록 직접적으로 주문하지 않고 ‘其外不解者, 尙未可攻, 當先解其外. 外解已’를 삭제하여 제시하였는데, 이와 같은 표현 방식은 仲景의 권위를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자신과 대립적인 견해 또한 포용할 여지를 둘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앞서 언급한 朱肱과 같이 桃仁承氣湯證과 抵當湯證은 반드시 表證이 풀린 후에야 약을 쓸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許浚이 제시한 桃仁承氣湯 條文을 보면, 表證이 없는 경우라 해도 桃仁承氣湯을 사용하는 것에 제약이 없다. 따라서 許浚은 이를 통해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면서도 반대편의 견해 또한 어느 정도 포용할 수 있게 된다.

25)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52.

26) 『東醫壽世保元』에서 人參桂枝湯 條文으로 제시한 내용은

裏證가 더불어 ‘表證’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을 때 고인들이 承氣湯을 여러 번 사용함으로써 마침내 下利不止가 발생하는 폐해가 있었음을 언급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고인들이 承氣湯을 抵當湯과 桃仁承氣湯으로 바꾸어 사용하였다고 논술했다. 그런데 여기서 李濟馬가 抵當湯과 桃仁承氣湯을 사용하도록 언급한 상황은 바로 承氣湯을 쓰면 下利不止에 이르게 되는 상황, 곧 ‘表證’이 존재하는 상황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 李濟馬는 『傷寒論』과 달리 桃仁承氣湯에 대해 表證이 존재할 때 사용하는 處方으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李濟馬는 『東醫壽世保元』 「少陰人腎受熱表熱病論」에서 抵當湯과 桃仁承氣湯 條文을 인용한 부분의 전후에 引用하거나 언급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모두 表證이 존재하는 『傷寒論』의 太陽病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내용의 마지막이 앞서 언급한 人蔘桂枝湯 條文에 관한 내용인데,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表證이 없어진 『傷寒論』의 陽明病에 관한 條文들이 기술되어 있다.<sup>27)</sup> 따

실제로 『傷寒論』의 桂枝人蔘湯 條文을 가리킨다.(張仲景著. 注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p.118. “太陽病, 外證未除而數下之, 遂協熱而利. 利下不止, 心下痞硬, 表裏不解者, 桂枝人蔘湯主之.”) 그리고 桂枝人蔘湯 條文의 경우 『東醫寶鑑』에서도 人蔘桂枝湯이 아닌 桂枝人蔘湯으로 기술한 것을 李濟馬가 『東醫壽世保元』에 引用하면서 人蔘桂枝湯으로 바꾸어 기술한 것이다. 이처럼 李濟馬가 桂枝人蔘湯을 人蔘桂枝湯으로 의도적으로 바꾸어 기술한 까닭은 바로 少陰人 鬱狂證의 治法인 ‘益氣而升陽’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少陰人 表病의 鬱狂證에 대한 治法인 ‘益氣而升陽’은 구체적으로 ‘益氣를 중심으로 하고 보조적으로 升陽을 한다’는 의미를 지니며, 益氣의 대표적인 약물은 人蔘이 되고 升陽의 대표적인 약물은 桂枝가 된다. -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筆者의 碩士學位論文인 ‘朴修玄. 『東醫壽世保元』 少陰人 表病의 病機 및 治法에 대한 考察 - 益氣와 升陽을 중심으로 -. 慶熙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10.’을 참고하길 바란다. - 따라서 ‘益氣而升陽’에서도 升陽보다 더 重한 益氣를 강조하기 위해 升陽의 앞에 益氣를 먼저 언급한 바와 같이, 桂枝人蔘湯의 경우에도 益氣가 반영된 人蔘을 桂枝보다 앞에 둬으로써 ‘益氣而升陽’을 더욱 강조한 것을 알 수 있다.

27)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52. “太陽病 外證未除而數下之遂下利不止 云云者亦可見 古人之於此證 用承氣湯則下利不止 故遂變其方而用抵當桃仁湯耳 太陽病外證未除則 陽氣其力 雖有鬱抑 猶能振寒而與寒邪相爭於表也 若外證盡除則 陽氣其力 不能振

라서 이를 통해 볼 때에도 李濟馬가 『東醫寶鑑』의 桃仁承氣湯 條文을 보면서 表證이 없어진 후에 桃仁承氣湯을 사용하는 張仲景의 관점이 아닌, 表證이 있을 때 바로 桃仁承氣湯을 사용하는 許浚의 관점으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sup>28)</sup> 이상의 내용들을 통해 許浚은 『東醫寶鑑』에 桃仁承氣湯 條文을 인용할 당시 일부 原文을 삭제함으로써 抵當湯 條文과 같이 表證이 있는 경우에도 桃仁承氣湯을 바로 사용하도록 주문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처럼 表證이 존재할 때 桃仁承氣湯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다소 조심스럽고 완곡한 방식으로 표현한 許浚의 주장이 과연 합리적인지에 대해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는 비단 許浚이 제시한

寒而遂爲窮困縮伏之勢也 攻下之藥 何甚好藥而必待陽氣窮困縮伏之時而應用耶 人蔘桂枝湯 不亦晚乎. 張仲景曰 婦人傷寒發熱 經水適來適斷 晝日明了 夜則譫語 如見鬼狀 此爲熱入血室 無犯胃氣及上二焦 必自愈.”

28) 李濟馬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桃仁承氣湯과 抵當湯이 承氣湯에서 갈라져 나온 處方으로서 治法上 같은 下法에 해당하는 處方들이며,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52. “用承氣湯則下利不止 故遂變其方而用抵當桃仁湯耳”) 『傷寒論』에서 下法은 表證이 없어질 때에야 비로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다.(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52. “太陽病外證未除則 陽氣其力 雖有鬱抑 猶能振寒而與寒邪相爭於表也 若外證盡除則 陽氣其力 不能振寒而遂爲窮困縮伏之勢也 攻下之藥 何甚好藥而必待陽氣窮困縮伏之時而應用耶 人蔘桂枝湯 不亦晚乎.”) 따라서 李濟馬가 許浚이 제시한 바와 같이 表證이 있을 때 桃仁承氣湯을 사용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東醫壽世保元』에 기술한 것은, 『東醫寶鑑』을 통해서 『傷寒論』을 접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수밖에 없는 한계가 아니라 桃仁承氣湯 條文 그 자체, 抵當湯 條文들과 桂枝人蔘湯 條文, 그리고 承氣湯 條文들을 함께 살펴볼 때 表證이 있을 때 桃仁承氣湯을 사용하는 것이 맥락상 자연스럽다고 스스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李濟馬는 『東醫寶鑑』에서 『傷寒論』 條文들을 引用할 때 해당 내용들을 그대로 引用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條文의 일부 내용을 삭제하기도 하였으며, 혹은 條文을 引用한 후에 이어서 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따라서 만일 李濟馬가 桃仁承氣湯 條文이 治法上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면, 條文上에서 바로 수정을 했거나 이에 대한 논술을 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반드시 지적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桃仁承氣湯의 表證에 관한 내용은 表證을 기준으로 하여 鬱狂證의 단계를 구분할 수 있게 하는 매우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만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향후 논리적인 전개를 위해서 이러한 점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견해의 합리성 여부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를 주된 근거로 하여 少陰人 鬱狂證을 새롭게 제시한 李濟馬의 견해가 과연 합리적인가와도 직결되는 문제로서, 본 論文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자 하는 내용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張仲景은 『傷寒論』에서 表證과 裏證이 모두 존재하는 桃仁承氣湯에 먼저 解表之劑를 사용하여 表證이 없어진 후에 桃仁承氣湯을 사용하여 裏證을 치료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表證이 없어지고 少腹急結의 裏證만 남은 상태는, 表가 완전히 풀렸다고 보기 보다는 表部에서 발생했던 正邪相爭이 일시적으로 소강상태에 접어들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실 한편으로 매우 당연한 이야기지만, 桃仁承氣湯證과 같이 表裏兼病의 상황에서 表가 먼저 풀린 후에 裏가 풀리는 것보다 裏에서부터 正氣가 회복되어 裏證이 없어진 후 자연스럽게 正氣가 表部에 도달함으로써 단계적으로 表邪를 물리치는 것이 훨씬 근본적이면서 순리에 맞는 치법이다. 이에 대해 좀 더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인체의 正氣를 논할 때 裏의 正氣와 表의 正氣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그리고 『傷寒論』에는 寒邪가 바로 陰經에 直中하는 경우와 같이 일부 예외적인 경우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일반적인 경우에는 寒邪가 가장 먼저 表를 침범한 후에 점차 진행되어 裏로 침입하는 순차적인 단계를 거친다. 따라서 이러한 병리적인 상황이 원상태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病邪의 침입 단계와는 반대로 正氣가 裏에서부터 회복되어 表部까지 도달하면서 寒邪를 물리치는 것이 가장 順한 방법이다. 그러므로 表裏兼病의 상황에서 解表之劑를 사용하여 表證이 사라지고 裏證만 남은 것은, 表가 완전히 풀렸다고 보다는 表部에서 발생하는 正邪相爭이 일시적으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고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그리고 桃仁承氣湯證 또한 일반적인 경우와 같이 表部에서부터 寒邪가 침입하여 蓄血證인 裏證이 유발된 상황에 해당한다. 따라서 桃仁承氣湯證 또한 가장 이상적인 治法은 裏를 중심으로 하여 裏와 表를 함께 치료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

한 結論은 실제로 桃仁承氣湯 條文과 處方 구성을 살펴봄으로써 더욱 확실히 알 수 있다. 먼저 桃仁承氣湯 條文의 내용을 살펴보면, 條文 중간에 ‘血自下, 下者愈.’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말 그대로 저절로 下血이 이루어질 경우 病 또한 낫게 된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血自下’에 기술된 ‘血’은 表에서부터 침입한 寒邪가 陽氣인 正氣를 下焦에 억압하므로 발생한 蓄血이다. 이는 桃仁承氣湯 조문의 ‘熱結膀胱’, 그리고 桃仁承氣湯 條文과 유사한 抵當湯 條文에 기술된 ‘熱在下焦’라는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때 蓄血이 저절로 빠져나간다는 것은, 陽氣가 裏에서부터 저절로 회복되어 裏에서 陽氣를 억압하고 있는 寒邪와 싸워 이김으로써 蓄血의 발생 원인인 下焦 鬱熱의 상황이 해소되고 陽氣가 裏에서 제대로 소통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蓄血이 빠져나간 후에 病이 낫는다는 것은, 裏에서 소통이 된 陽氣가 자연스럽게 表까지 도달하여 病을 일으킨 表의 寒邪까지 물리침으로써 表裏가 모두 풀리게 되어 桃仁承氣湯證이 완전히 치료되게 됨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條文上 ‘血自下, 下者愈.’하는 상황은 아직 表證이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한 ‘血自下, 下者愈.’ 이후에 반드시 다시 汗法을 시행하여 表를 풀어주어야 한다는 내용도 없다.<sup>29)</sup> 따라서 蓄血이 저절로 배출되어 낫는다는 것은 단지 裏만 풀린다는 것이 아니라 表까지 모두 낫게 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桃仁承氣湯證이 저절로 낫는 기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表裏兼病의 상황이 치료되기 위해서는 물론 表에서 病邪가 풀리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裏에서부터 陽氣가 회복되어 풀리는 것이 더욱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桃仁承氣湯證을 치료하는 데에 있어 表를 풀어내는 것보다 裏를 치료하는 것이 더 근본적으로

29) 이 뿐만 아니라 抵當湯證의 경우에도 表證과 裏證이 모두 존재하는 상황에서 抵當湯을 사용하여 치료하는데, 抵當湯의 약물 구성을 살펴보면 表를 다스리는 약물이 전혀 없다. 오히려 下法으로 裏의 正氣를 소모시키는 약물들만 구성되어 있는데, 이처럼 오로지 裏만 다스리는 抵當湯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下焦의 蓄血이 빠져나감에 따라 裏證 뿐만 아니라 表證까지 모두 치료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서도 위와 동일한 結論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중요하다면, 그리고 같은 蓄血證 중 더욱 重한 病증인 抵當湯證의 경우 表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表證을 치료하는 것에 대한 고려 없이 裏證을 치료하는 데에만 약력을 집중했고 이 경우 條文上 ‘主之’로서 치료가 잘 되었다면, 桃仁承氣湯證 또한 굳이 汗法으로 表를 먼저 풀기를 기다렸다가 이후에 桃仁承氣湯을 사용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表證과 裏證이 함께 존재할 때 바로 裏證을 풀어내면서 이어서 表部가 풀리도록 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일 수 있다.<sup>30)</sup>

30) 이에 대해 혹자는 桃仁承氣湯證이 치료됨에 있어 瘀血을 내보내는 약들 뿐만 아니라 表를 다스리는 桂枝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表를 먼저 풀 후에 裏를 치료하는 張仲景의 治法이 옳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혹은 張仲景이 桃仁承氣湯에 桂枝를 아무 이유 없이 넣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桂枝 또한 下焦의 瘀血을 내보내는데 중요한 작용을 하며, 결국은 裏 뿐만 아니라 表도 함께 치료해야만 病이 나올 수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거듭 강조하지만 桃仁承氣湯證보다 더욱 重한 狀況을 치료하는 抵當湯에는 表를 다스리는 약물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主之’로서 치료가 잘 된다. 따라서 桂枝가 없더라도 抵當湯을 통해 桃仁承氣湯證보다 더욱 重한 抵當湯證을 치료할 수 있다는 점에서 桃仁承氣湯의 桂枝는 치료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處方에서 桂枝가 없더라도 치료에 전혀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이러한 사실을 통해 당시 桃仁承氣湯證에 대한 張仲景의 깊은 고민을 느낄 수 있다. 일반적으로 『傷寒論』에서 桂枝는 桂枝湯과 麻黃湯의 主劑로서 汗法에 사용되어 表를 풀어내는 대표적인 약물이다. 또한 下法에 해당하는 약물들은 大黃과 芒硝로서, 어떠한 承氣湯類의 處方에도 桂枝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桃仁承氣湯과 함께 蓄血證을 치료하는 抵當湯에도 桂枝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汗法에 해당하는 桂枝가 處方名처럼 下法을 위주로 하는 桃仁承氣湯에 포함되었다는 것은, 桃仁承氣湯에 적용된 治法이 정말 妙해서가 아니라 일반적인 下法에 해당하는 處方들과 비교할 때 치법이 순일하지 못하고 두 가지 이상이 혼란스럽게 적용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곧 張仲景의 입장에서 볼 때 抵當湯證과 같이 蓄血을 유발하는 병리적 狀況이 重할 경우 아예 蓄血을 제거하는 下法 위주의 약물들을 사용하면 되지만, 저절로 낫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蓄血의 狀況이 상대적으로 輕微한 桃仁承氣湯證의 경우 下法을 위주로 하면서도 한편으로 汗法을 떠올리게 된 것이다. 이러한 고민의 결과물이 바로 桃仁承氣湯이라 볼 수 있으며, 실제로 桃仁承氣湯은 條文에서 ‘主之’가 아닌 ‘宜桃核承氣湯’으로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처럼 애매한 부분들이 많은 桃仁承氣湯 條文 및 그와 연관된 抵當湯 條文들을 좀 더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시도 중의 하나로서 許浚의 견해가 존재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선 張仲景이 下法에 대항하여 汗法을 제시하게 된 과정부터 자세히 논술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본 論文中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와는

실제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桃仁承氣湯證에서 汗法을 통해 表部를 풀어내는 것은 일시적인 소강상태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한편으로 表邪를 풀어내는 陽氣 또한 결국은 裏에서 공급된, 혹은 끌어온 것인데, 이로써 裏에서 억압하고 있는 寒邪를 물리치기 위한 裏의 正氣는 더욱 소모된 것에 불과하며 裏가 제대로 풀리지 않는다면 결국은 다시 表證이 발생하거나 裏證이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裏가 풀리기 전에는 下焦 蓄血이 계속적으로 유발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病情이 더욱 악화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굳이 汗法으로 表部가 풀리기를 기다리면서 시간을 지체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表證이 아직 존재하고 시간이 덜 지체되어 正氣가 조금이라도 더 남아있는 상태에서 바로 桃仁承氣湯을 쓰는 것이 더욱 좋은 치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상 고찰한 내용들을 통해 볼 때 許浚이 『東醫寶鑑』에 수정하여 引用한 桃仁承氣湯 條文은, 표증 유무에 상관없이 모두 桃仁承氣湯을 사용할 수 있도록 완곡한 표현방식을 빌어서 표현함으로써 『傷寒論』의 본의를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傷寒論』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도는 상당히 합리적인 면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 ④ 『東醫寶鑑』에 기술된 抵當湯 條文들에 대한 考察

『東醫寶鑑』에 기술된 두 개의 抵當湯 條文들을 살펴보면 狂證 및 少腹의 硬化에 관한 證狀들이 『傷寒論』 原文의 그것과 다르게 수정이 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은 앞서 서두에 밝힌 바와 같이 모두 상한에서 抵當湯證을 蓄血證으로 진단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에 해당한다. 따라서 許浚이 왜 抵當湯 條文들을 이와 같이 수정하여 『東醫寶鑑』에 引用하였는지, 그리고 이와 같이 수정한 것이 과연 합리성을 지니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이에 대한 考察을 진행하면 다음과 같다.

약간 거리가 있으므로 여기서 생략하도록 한다.

蓄血證 條文에서 狂證 및 少腹에 관한 證狀들은 비단 蓄血證을 진단하는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蓄血證 각각의 病情을 서로 비교할 수 있게 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먼저 蓄血證의 狂證에 대해 살펴보면 ‘其人如狂’과 ‘發狂’ 두 가지가 있는데, ‘其人如狂’은 그 뜻이 ‘마치 미친 것과 같다’는 의미로서 이미 狂證이 발생한 상황인 ‘發狂’보다 상대적으로 덜 위중한 證狀임이 분명하다. 실제로 저절로 下血을 하면 낫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抵當湯證보다 病情이 가벼운 桃仁承氣湯證의 경우, 狂證과 관련된 證狀은 ‘其人如狂’으로만 기술되어 있지만 抵當湯證에는 ‘其人如狂’과 ‘發狂’이 모두 존재한다. 따라서 狂證을 기준으로 抵當湯證과 桃仁承氣湯證을 비교해볼 때 抵當湯證이 桃仁承氣湯證에 비해 대체로 病情이重하며, 최소한 桃仁承氣湯證의 그것과 비슷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의미상으로나 湯證 간의 비교를 통해서도 ‘發狂’이 ‘其人如狂’보다 더 重한 상황임을 알 수 있으며, 이 둘을 비교함으로써 각각의 病情을 구분할 수 있다.

다음으로 少腹의 硬化와 관련된 證狀들 또한 狂證과 마찬가지로 蓄血證의 輕重을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少腹과 관련된 證狀의 경우 桃仁承氣湯證에는 ‘少腹急結’, 그리고 抵當湯證에는 ‘少腹硬滿’과 ‘少腹硬’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이러한 證狀들은 모두 下焦의 蓄血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少腹의 證狀들은 모두 외부에서 물리적인 진단이 가능해지며,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硬化가 진행되게 된다. 실제로 病情이 抵當湯證에 비해 輕한 桃仁承氣湯證의 경우, 瘀血이 쌓이기 시작하지 시간적으로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을 나타내는 ‘急’과 아직 硬化까지 진행되지 않았으나 瘀血이 쌓여서 비로소 맺히기 시작한 ‘結’이라는 표현으로 少腹의 證狀이 기술되어 있다. 하지만 抵當湯證의 경우 桃仁承氣湯證에 비해 瘀血이 쌓이기 시작한 시간이 꽤 진행되어 ‘急’이라는 표현이 빠지고, 瘀血이 ‘結’한 부위의 血行이 저체됨에 따라 발생하는 ‘滿’, 그리고 瘀血이 ‘結’한 부위를 중심으로 瘀血이 더욱 축적됨에 따라 발생하는 ‘硬’이라는 표현으로 少腹의 證狀이 서술되어 있다. 곧 少腹의 硬化와 관련된 證狀의 경우 ‘結’ 이후

에 ‘滿’하게 되며, 이에서 더 진행되어 ‘硬’에 이르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도 앞서 狂證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蓄血證의 病情을 구분할 수 있다.

이상 살펴본 내용들을 염두에 두고 두 개의 抵當湯 條文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傷寒論』에서 太陽病으로 제시된 두 개의 抵當湯 條文은 ‘太陽病六七日, 表證仍在, 脈微而沈, 反不結胸, 其人發狂者, 以熱在下焦, 少腹當硬滿, 小便自利者, 下血乃愈. 所以然者, 以太陽隨經, 瘀熱在裏故也, 抵當湯主之.’<sup>31)</sup>와 ‘太陽病, 身黃, 脈沈結, 少腹硬, 小便不利者, 爲無血也. 小便自利, 其人如狂者, 血證諦也, 抵當湯主之.’<sup>32)</sup>이다. 이 두 條文은 證狀이 대체로 유사하지만 ‘身黃’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우선 抵當湯證과 동일하게 蓄血證에 해당하는 桃仁承氣湯證의 경우에도 狂證 및 少腹에 관한 證狀들이 모두 존재한다. 따라서 狂證 및 少腹에 관한 證狀들은 蓄血證의 가장 기본이 되는 證狀으로서, 위의 두 抵當湯 條文 간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다. 또한 脈象 및 小便 證狀의 경우에도 모두 沈脈과 小便自利로 유사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도 두 條文 간의 차이를 분명히 구분하기 어렵다. 하지만 ‘身黃’은 나머지 공통적인 證狀들과 달리 桃仁承氣湯證과 抵當湯證을 모두 통틀어 한 개의 抵當湯 條文에만 기술되어 있다. 여기서 身黃은 下焦에 있는 熱과 瘀血로 인해 病證이 더욱 진행되면서 두 개의 抵當湯 條文 중 前者의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전신에 파급되어 발생하게 된 證狀이다. 따라서 두 개의 抵當湯 條文의 病情을 비교해볼 경우, 身黃이 포함된 抵當湯 條文이 그렇지 않은 條文보다 病情이 더 重하다고 볼 수 있다.

筆者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혹자는 두 개의 抵當湯 條文 모두 證狀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病情의 차이를 논하는 것이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여筆者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張仲景은 『傷寒論』에서 茵蔯蒿湯, 梔子柏皮湯, 麻黃連翹赤小豆湯 條文 등을 통해 ‘身黃’을 상당히 중요한

31) 張仲景 著. 注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pp.100-101.

32) 張仲景 著. 注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p.101.

證狀 중 하나로 다루었다. 따라서 기존의 抵當湯 條文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身黃’을 추가적으로 제시하여 별도의 抵當湯 條文을 다시 기술하였다는 것은, 抵當湯證에서 身黃이 가지는 의미를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身黃을 기준으로 하여 抵當湯證의 輕重을 파악하는 것은 충분한 의미를 지닌다. 뿐만 아니라 설령 身黃만으로 두 條文 간의 病情을 구분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두 條文 간의 病情을 구분해야만 하는 내용이 명백히 존재한다. 바로 狂證에 관한 표현이 그것인데, 앞서 밝힌 바와 같이 ‘其人如狂’과 ‘其人發狂’은 그 자체로 분명히 輕重이 구분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표현이 각각 두 條文中에서 동일하지 않고 각각 별개로 나누어 기술되었다는 점은, 실제로 그것이 각각의 輕重에 맞게 논리적으로 기술되었든 그렇지 않든 간에 두 條文의 輕重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두 條文 간에 輕重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할 경우, 두 條文의 나머지 證狀들 중 狂證과 少腹의 硬化에 국한되지 않고 ‘身黃’까지 발생한 條文이 더욱 중요한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傷寒論』에 기술된 두 抵當湯 條文의 狂證을 비교해보면, 身黃이 포함된 抵當湯 條文에는 ‘其人如狂’으로 기술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條文에는 ‘其人發狂’으로 기술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두 條文 간의 病情의 輕重을 고려할 때 일관되지 못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곧, 두 條文 중 대체로 病情이 더욱 중한 身黃이 포함된 抵當湯 條文에 ‘其人發狂’이 기술되고 身黃이 포함되지 않은 條文에 ‘其人如狂’이 기술되는 것이 논리적으로 옳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실체는 이와 반대로 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抵當湯 條文의 病情을 고려하여 狂證에 관한 서술을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許浚은 身黃이 포함되지 않은 條文에는 ‘其人如狂’, 身黃이 포함된 條文에는 ‘發狂’으로 기술하여 두 條文의 輕重에 맞게 논리적으로 狂證을 정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狂證 이외에 少腹과 관련된 證狀도 함께 살

펴보면, 『傷寒論』에는 ‘少腹當硬滿’과 ‘少腹硬’으로 기술되어 사실상 두 條文 간의 경중의 차이를 구분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許浚은 『東醫寶鑑』에서 身黃이 포함되지 않은 條文에는 ‘少腹當滿’, 그리고 身黃이 포함된 條文에는 ‘少腹硬滿’으로 수정하였는데, 이를 따를 경우 앞서 狂證과 마찬가지로 두 條文 간의 輕重이 명확하게 구분됨을 알 수 있다.<sup>33)</sup> 이처럼 許浚이 두 개의 抵當湯 條文을 인용하면서 狂證 및 少腹에 관한 證狀을 수정한 까닭은 病情에 있어 논리적으로 매끄럽지 못한 내용을 정리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다.<sup>34)</sup>

#### ⑤ 『東醫寶鑑』의 桃仁承氣湯 및 抵當湯 條문이 『東醫壽世保元』에 끼친 영향

이상 許浚이 『東醫寶鑑』에서 桃仁承氣湯 및 抵當湯 條文을 왜 수정하여 기술하였으며, 수정된 조문들이 어떤 합리성을 지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지금부터는 李濟馬가 『東醫寶鑑』의 桃仁承氣湯 및 抵當湯 條文을 『東醫壽世保元』에 인용함으로써 받은

33) 『東醫寶鑑』에 抵當湯 條文은 두 군데에 인용되어 있는데, 身黃이 포함되지 않은 抵當湯 條文의 경우 少腹에 관한 증상은 모두 ‘少腹當滿’으로 기술되어 있다. 그리고 身黃이 포함된 抵當湯 條文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寒門의 ‘太陽蓄血’에는 ‘少腹硬’으로, 寒門의 ‘傷寒血證’에는 ‘少腹硬滿’으로 기술되어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허준의 입장에서는 ‘滿’도 蓄血證을 표현하는데 있어 중요하긴 하지만 일단 ‘硬’이 발생하면 ‘滿’이 아니라 ‘硬’을 기준으로 蓄血證을 파악하는 것이 더욱 적절함을 알 수 있다.

34) 抵當湯 條文의 내용 중 狂證의 경우에는 『傷寒論』原文에 ‘其人如狂’과 ‘其人發狂’으로 분명하게 輕重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輕重에 따라 가벼운 경우에는 ‘其人如狂’, 더 중한 경우에는 ‘發狂’으로 구분하여 기술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하지만 少腹에 관한 證狀의 경우 『傷寒論』原文에 ‘少腹當硬滿’과 ‘少腹硬’으로 기술되어 있어 두 표현 사이에 輕重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다. 따라서 비록 두 條文 간에 病情의 輕重이 분명히 존재한다 할지라도 少腹에 관한 證狀만 담은 『傷寒論』原文과 같이 ‘少腹當滿’으로 차이가 없을 수도 있고, 許浚이 제시한 바와 같이 ‘少腹當滿’과 ‘少腹硬滿’으로 명확하게 구분될 수도 있다. 그런데 少腹의 證狀이 동일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許浚은 ‘少腹當滿’과 ‘少腹硬滿’으로 輕重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이는 아마도 許浚의 개인적인 판단이나 임상 경험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영향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李濟馬는 少陰人 表病의 鬱狂證의 상황을 크게 둘로 나누었는데, 表證이 있는 상태의 鬱狂證과 表證이 없어진 상태의 鬱狂證이 그것이다. 그리고 桃仁承氣湯과 抵當湯 條文은 表證이 있는 상태의 鬱狂證을 제시하기 위해 李濟馬가 『東醫壽世保元』에 인용한 내용으로서, 최종적으로 人參桂枝湯 條文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이 세 條文을 통해 表證이 존재하는 鬱狂證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이를 간략히 정리하면, 고인이 表證이 있는 상태에서 承氣湯을 사용하여 下痢가 그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張仲景이 承氣湯을 桃仁承氣湯과 抵當湯으로 바꾸어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東醫寶鑑』에 기술된 桃仁承氣湯 및 抵當湯 條文을 근거로 할 경우 정확히 옳은 내용이 된다. 뿐만 아니라 『傷寒論』 原文에 존재하는 桃仁承氣湯과 抵當湯 條文 간의 表證에 관한 문제, 그리고 抵當湯 條文 간의 病情의 輕重이 서로 맞지 않는 문제 또한 許浚이 이미 정리를 해두었다. 따라서 이로 인해 李濟馬는 『東醫壽世保元』에서 表證이 아직 존재하는 少陰人 鬱狂證과 表證이 없어진 少陰人 鬱狂證을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일목요연하게 구분할 수 있었고, 덕분에 少陰人 鬱狂證의 진행 단계도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李濟馬는 『東醫寶鑑』의 桃仁承氣湯 條文과 抵當湯 條文을 引用함으로써 논리적으로 완결된 형태의 少陰人 鬱狂證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東醫寶鑑』이 아닌 『傷寒論』 原文을 기준으로 李濟馬의 주장을 판단할 경우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주장이 된다. 왜냐하면 抵當湯 條文에 대해서는 상관없지만, 桃仁承氣湯 條文의 경우 表證이 없어진 후에야 비로소 桃仁承氣湯을 사용하기 때문에 表證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下法을 사용했다는 李濟馬의 전제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sup>35)</sup> 또한 桃仁承氣湯 條文中에서 表證이 없어진 후에 桃仁承氣湯을 사용할 경우, 엄밀히 말해 桃仁承

氣湯證은 表證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 『東醫壽世保元』에 기술된 바와 같이 表證이 존재하는 少陰人 鬱狂證의 주된 근거로 활용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傷寒論』 原文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李濟馬가 제시한 少陰人 表病에 대한 논술 또한 지금과 다르게 전개되었을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하지만 설령 李濟馬가 桃仁承氣湯을 『傷寒論』 原文 그대로 접했다 할지라도 少陰人 表病의 전제적인 맥락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만일 李濟馬가 『傷寒論』 原文을 통해 직접 桃仁承氣湯 條文을 접했다면 表證에 대한 抵當湯 條文과의 불일치 문제를 반드시 인식하였을 것이다. 실제로 李濟馬는 『東醫壽世保元』 내에서 表證을 기준으로 抵當湯과 桃仁承氣湯, 그리고 人參桂枝湯 條文을 차례로 기술하였고, 表證 有無를 통해 正氣의 상태를 판단할 정도로 表證을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따라서 李濟馬가 表證에 관한 문제를 간과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桃仁承氣湯 條文이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抵當湯 條文과 人參桂枝湯 條文을 중심으로 현재와 같이 表證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때 반드시 桃仁承氣湯 條文의 表證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少陰人 表病에 대한 내용이 현재와 동일할 것이며, 부분적으로 성립하고 서로 차이가 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李濟馬가 논리적인 정리를 진행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를 바탕으로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볼 수 있다. 먼저 첫 번째는 李濟馬가 桃仁承氣湯 및 抵當湯 條文에 대해 許浚과 견해를 같이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현재 『東醫壽世保元』에 인용된 것과 같으므로 현재와 거의 유사한 모습으로 저술되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sup>36)</sup> 다음으로 두 번째는 朱肱과 같이 『傷寒論』의 대원칙, 그리고 桃仁承氣湯 條文에 기술된 실례를 따라 抵當湯 條文에 대해서도

35) 이를 통해서도 李濟馬가 『傷寒論』을 직접적으로 접하지 못하고 『東醫寶鑑』을 통해 간접적으로 접했음을 알 수 있다.

36) 아마도 첫 번째 가설대로 진행될 확률이 높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抵當湯 條文과 人參桂枝湯 條文은 ‘主之’이지만, 桃仁承氣湯 條文은 ‘宜’에 해당하기 때문에 李濟馬가 抵當湯과 人參桂枝湯 條文을 중심으로 하여 桃仁承氣湯 條文을 해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먼저 桂枝湯을 사용하여 表를 풀어낸 이후에 抵當湯을 사용하는 것으로 정리하는 경우이다. 그런데 여기서 抵當湯證에 表를 풀어내는 桂枝湯은 李濟馬가 人參桂枝湯과 함께 少陰人 表病을 치료하는 데에 있어 ‘得其彷彿’이라 표현했던 處方이다.<sup>37)</sup> 곧, 少陰人 表病의 主劑로서 少陰人 表病의 治法인 ‘益氣而升陽’ 중 升陽에 해당하는 處方이며, 表部와 함께 더불어 裏部를 다스리는 處方이다.<sup>38)</sup> 따라서 李濟馬의 관점에서 볼 때 桃仁承氣湯證과 抵當湯證에 먼저 表를 풀기 위해 桂枝湯을 사용하는 것은, 비록 人蔘이 빠져서 ‘益氣’하는 藥力이 부족하긴 하지만 桂枝湯 이후에 桃仁承氣湯과 抵當湯을 사용하는 것과는 비교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훨씬 더 적절하고 근본적인 치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李濟馬가 朱肱의 견해와 같이 桃仁承氣湯 및 抵當湯 條文을 이해했다 하더라도 현재 少陰人 表病에 대한 맥락과 논리적으로 크게 상치되는 바가 없으며, 현재와는 약간 다른 구성을 통하여 대체로 거의 유사한 結論에 도달할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李濟馬가 『東醫寶鑑』과 『傷寒論』 중 그 무엇을 통해서 桃仁承氣湯 및 抵當湯 條文을 접했다 하더라도 少陰人 表病에 관한 내용은 현재와 대동소이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 III. 結 論

본 論文에서는 前篇에서 도출한 結論을 바탕으로 『東醫壽世保元』에 기술된 三物白散과 巴豆에 관한 내용에 이어 桃仁承氣湯 및 抵當湯 條文에 대한 考察을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李濟馬가 『傷寒論』 原文과는 다른 桃仁承氣湯 및 抵當湯 條文을 『東醫壽世保元』에 기술하게 된 과정, 그리고 許浚이 桃仁承氣湯 및 抵當湯 條文을 수정한 이유와 이렇게 수정한 내용이 어떠한 합리성을 지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李濟馬가 『東醫寶鑑』의 해당 條文을 『東醫壽世保元』에 引用함으로써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되었는지도 살펴보았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許浚은 『東醫寶鑑』에서 桃仁承氣湯 및 抵當湯 條文의 주요 내용을 『傷寒論』 原文과 다르게 수정하여 기술하였으며, 李濟馬는 『東醫寶鑑』에서 桃仁承氣湯 및 抵當湯 條文을 引用하여 『東醫壽世保元』에 기술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傷寒論』 原文과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다.

2. 許浚이 『傷寒論』의 桃仁承氣湯 條文에서 表證과 관련된 부분을 삭제하여 『東醫寶鑑』에 기술한 이유는, 이 내용이 동일한 蓄血證에 해당하는 抵當湯 條文과 일관되게 합치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편, 抵當湯 條文을 수정한 까닭은, 太陽病에 속하는 두 개의 抵當湯 條文이 서로 輕重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狂證 및 少腹의 硬化에 관한 證狀은 각 條文에 따라 일관되지 못하게 기술되었기 때문이다.

3.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許浚은 桃仁承氣湯 條文의 경우 抵當湯 條文과 같이 表證이 있을 때 바로 桃仁承氣湯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삭제, 수정하였다. 그리고 抵當湯 條文의 경우 狂證 및 少腹의 硬化에 관한 證狀들을 다시 조정하여 條文 간의 輕重이 일관되도록 정리하였다. 그리고 이를 자세히 살펴본 결과 나름의 합리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 李濟馬는 許浚이 蓄血證을 치료하는데 있어 表證에 관한 문제, 그리고 抵當湯 條文 간의 病情이 일관되지 않은 문제들을 정리해둔 桃仁承氣湯 및 抵當湯 條文을 『東醫壽世保元』에 引用함에 따라 이러한 문제들을 다시 다룰 필요가 없어졌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表證이 아직 존재하는 少陰人 鬱狂證과 表證이 사라진 少陰人 鬱狂證을 명확히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게 되었고, 논리적으로도 자연스럽게 少陰人 表病을 정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상 본 論文에서 진행했던 桃仁承氣湯과 抵當湯 條文에 대한 考察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이후에 진

37)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53. “仲景 太陽陽明病藥方中 惟桂枝湯人蔘桂枝湯 得其彷彿”

38)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筆者의 學位論文인 “朴修玄. 『東醫壽世保元』 少陰人 表病의 病機 및 治法에 대한 考察 - 益氣와 升陽을 중심으로 -. 慶熙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10.”을 참고하길 바란다.

행될 후속 論文에서는 먼저 『東醫壽世保元』의 赤石脂禹餘糧湯 條文을 간단히 정리한 후, 이어서 甘瀉心湯 條文을 중심으로 考察을 진행하고자 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동안 考察했던 引用文 研究에 대한 結論을 통해 향후 『東醫壽世保元』 引用文 研究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筆者의 견해를 제시함으로써 『東醫壽世保元』 引用文 研究에 관한 모든 論文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 參考文獻

### <論文>

1. 朴修玄, 丁彰炫, 白裕相, 張祐彰. 『東醫壽世保元』 「少陰人胃受寒裏寒病論」의 赤石脂禹餘糧湯 條文에 대한 考察(1).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0. 23(6). pp.59-61.
2. 李壽瓊. 『東醫壽世保元』 太少陰陽人の 『病證論』에 관한 研究. 慶熙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00. p.199.

### <단행본>

1.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51, 652, 653.
2. 張仲景 著. 注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p.100, 101, 118, 138, 143, 148.
3. 朱肱 著. 萬友生, 萬蘭清 等 點校. 活人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3. p.133, 202.
4. 許浚 著. 陳柱杓 校. 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7. p.303, 308, 1074, 1115.

